

조성 변화를 통한 PZT 박막의 유전 및 피로 특성  
Dielectric and Fatigue Characteristics of PZT Thin Film by  
Composition Modification

수원대학교 전자재료공학과  
강동현 신상현 맹용주 설충의

### 1. 서론

FRAM이나 암전박막소자등에 뛰어난 응용성이 보고 되고 있는 PZT계 강유전박막 연구는 주로 우수한 유전/암전성을 보이는 rhombohedral/tetragonal 상경계 부근 조성(52/48)을 중심으로 이뤄져오고 있다. 그러나 이 조성의 경우 많은 제조조건 변화, 침가체를 이용한 조성조절, 전극물질변화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시 물성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등의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PZT계 박막의 유전물성 저하방지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Zr rich 영역의 PZT계 조성(80/20)을 택한 후 Pb자리에 Sr을 치환시킨 PSZT계 박막을 제조하여 Sr 조성 변화에 따른 전기상(AFE-FE-PE)의 변화에 따른 물리적 특성을 결정상, 미세구조, 유전특성, 분극, 피로특성의 관점에서 조사하고자 한다. 이때 용액 및 박막은 modified chemical solution deposition법과 spin coating법으로 제조하였다.

### 2. 실험방법

본 연구의 PSZT 전구체 제조방법은 Pb 와 Sr acetate, Ti isopropoxide, Zr n-propoxide를 원료로 하여 Sedlar 등에 의해 제안된 방법을 변화시켜 일반적으로 전구체 제조시 사용되는 알콜뿐 아니라 용해가 어려운 Sr 의 치환을 위해서 DI water, Propylenglycol를 용매로 사용하였다. 알록사이드의 가수분해에 대한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착체로 Acetylacetone을 사용하였다. 시편제조에 사용한 기판은 Pt/Ti/SiO<sub>2</sub>/Si이며 상부전극은 Pt를 사용하였다. 박막 열처리는 700-750°C 온도 영역에서 행하였다.

### 3. 실험결과

Sr 첨가량의 증가에 따른 박막의 결정구조가 Rhombohedral구조에서 Tetragonal구조로 변화되었고 격자상수가 약간 감소 하였다. 미세구조의 경우 입자 크기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. Sr 증가에 따른 유전상수 및 분극 변화의 경우 10 mol%정도 치환시 증가하였으며 그 이상 치환시 감소하였다. 또한 피로 특성의 경우 10-15 mol%정도 치환시 10<sup>9</sup> cycling후에도 초기 분극치를 거의 유지하는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. 이러한 현상을 조성변화에 따른 전기상변화등으로 설명하였다.

### 4. 참고문헌

- 1) M.Sedlar and M. Sayer, J. Sol-Gel Sci. Tech., 5 201 (1995)
- 2) H. Watanabe, T. Mihara and C. A. P. de Araujo, Integ. Ferroelectrics, 1, 293 (1992)
- 3) K. Sameshima, T. Nakamura, K. Hoshiba and Y. Nkao, Jpn. J. Appl. Phys., 32, 4144 (1993)